광주 콘텐츠기업, 애니메이션 글로벌 공동제작 '성과'

스튜디오버튼, 인도 뭄바이 대형제작사와 계약 체결
GICON 'ACE페어'서 첫 만남 싱가포르 'ATF'서 결실
'쥬라기캅스 극장판' 인도 진출…내년 여름 동시개봉

광주 콘텐츠기업 ㈜스튜디오버튼이 최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방송·영상 콘텐츠 마켓 'ATF 2025' GICON 공동관에서 인도 뭄바이 제작사 'Light n Light VFX Studio'와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쥬라기캅스 극장판:태권쥬키오'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 콘텐츠기업이 인도 대형 제작사와 손잡고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쥬라기캅스 극장판' 공동제작에 나선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광주 콘텐츠기업 ㈜스튜디오버튼이 최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방송·영상 콘텐츠 마켓 'ATF 2025' GICON 공동관에서 인도 뭄바이 제작사 'Light n Light VFX Studio'와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쥬라기캅스 극장판:태권쥬키오'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GICON 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2025 광주 ACE Fair'에서 시작된 양 기관의 협력이 ATF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스튜디오버튼은 이번 공동제작을 통해 인도 측으로부터 총 20만달러 규모의 현물 투자를 확정받았다.

스튜디오버튼과 Light n Light VFX Studio는 2026년 여름방학 시즌 동시 개봉을 목표로 작품을 공동 제작하며,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어 더빙판 개봉도 추진한다. 양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외주 제작 협력뿐 아니라 스튜디오버튼의 차기작 공동제작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해 2025 광주 ACE Fair에서 처음 만나 한국 애니메이션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에 주목한 인도 측의 높은 평가가 투자 의사로 이어졌으며, 이번 ATF 2025 GICON 공동관에서 최종적으로 공동제작 계약을 공식화했다.

김호락 스튜디오버튼 대표는 "GICON의 해외 전시·상담 지원이 큰 도움이 됐고, ACE Fair와 ATF를 통해 의미 있는 국제 협력을 이루게 됐다"며 "이번 극장판을 계기로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차기작까지 글로벌 공동제작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이번 계약은 지역 콘텐츠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마켓 참가, 상담회 운영, 공동제작 협력 등 기업 맞춤형 글로벌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담양군지부
담양군에 10kg 쌀 200포 전달

농협 담양군지부는 최근 담양군청에서 '범농협 농심가득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가 후원하고 (사)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사업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범농협 차원의 쌀 소비 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달식에서는 10kg 쌀 200포(총 600만원 상당)가 담양군에 전달됐으며, 기탁된 쌀은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일본 오사카축제장서 인기몰이 '전남김치'

전남도일본사무소, 김치체험·김밥시식 등 남도 맛 알려

전남도일본사무소는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2025 김장축제를 열어 전남산 재료로 김장김치를 담그는 체험행사를 진행, 씹을수록 고소한 소위 '게미'가 살아있는 전남 김치의 참맛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김장축제에서는 오사카전남도도민회, 오사카부의회, 일본인 현지 주민 등이 참여해 김장김치를 만들고 수육, 김밥, 막걸리 등 한식 시식행사를 통해 남도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우호교류를 도모했다.

특히 전남에서 수확한 배추와 각종 양념 채소를 사용해 음식문화 본고장인 전남 농·수산물의 깊은 맛을 내고 '게미' 있는 전남 김치의 참맛을 소개했다.

재일동포들에게는 푸근하고 따뜻한 고향의 맛을 되살려주고, 일본 주민들에게는 아삭아삭한 식감의 전남 정통 배추김치 맛을 느끼게 해 한류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국제교류의 장이 됐다.

남광일 오사카전남도민회장은 "이번 축제는 일본에 사는 도민이 따뜻한 고향의 맛을 느끼고 한 번 더 전남을 떠올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사카가미 오사카부의회 의원은 "말로만 듣던 한국 음식,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전남 농·수산물로 김치를 만들고 또 한식 시식을 통해 좋은 체험을 했다. 전남에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장축제 행사장에서는 김치 만들기 뿐만 아니라 전남 판소리 공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도 진행됐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남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영상도 상영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장대연 전남도일본사무소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전남을 일본에 알리고, 다양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음식문화와 역사관광을 집중 홍보해 전남 농·수산물 수출 확대는 물론 일본인의 전남 방문 활성화도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도일본사무소는 지난 2003년 일본 오사카에 개소해 일본의 5개 현(고치·사가·후쿠오카·나가사키·야마구치)과 자매결연·우호교류를 체결, 전남과 일본 간 공항·크루즈 신규 항로 개발, 농·수산물 수출·수입, 문화·관광·교육 국제교류 등을 펼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수협중앙회, 전남도의원 3명에 감사패 전달

신승철·진호건·정길수 의원 '수산업 발전 공로'

수협중앙회는 9일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 등 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그동안 지역 어업인 권익 보호와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승철·진호건·정길수 의원은 "수산업은 전남 지역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역경제와 어업인 생계기반과도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은 이번 감사패 전달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수협중앙회는 9일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